



주 제:	“무엇을 찾느냐?”	“연중 제 2 주일 ”	2009년 1월 18일
복음 대상:	[요한 1,35-42]	[1 사무 3,3 7.4-10.19]	[1 고린 6,13-15 7.17-20]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도 주님과 대화를 통해 그분이야말로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우물가에 물동이를 버려둔 채 고을로 달려가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제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힌 사람이 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실까요?”(4,29)라고 했습니다. 여인의 이 같은 전도 결과 그 고을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4,42) 세례자 요한의 두 제자는 “와서 보아라.”(1,39)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 보니 그분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야말로 자신들이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와서 보라.’는 것은 백문이불여일견(百聞而不如一見)이라는 말과 같이 와서 보면 알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안드레아는 메시아를 찾았기에 먼저 형 시몬을 찾아가 다짜고짜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1,41)라고 증거합니다. 그러고는 다시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이렇듯 우리는 무엇을 찾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시몬을 눈여겨보신 예수님은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는 케파라고 불릴 것이다.”라고 하십니다.(1,42) 예수님은 이미 시몬이 누구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시몬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될지를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시몬은 케파가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무엇을 찾느냐?” 하며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찾고 있지만 동물처럼 땅의 것만, 밑에 있는 것만을 찾지 말고 위의 것, 곧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하느님한테서 왔기 때문에 하느님 없이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인간다운 삶을 살고자 한다면 하느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이 어디인지를 물었던 요한의 제자들처럼 그저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으면 합니다. (정애경 수녀(울리베파노 성베네딕도수녀회))

**1. 가족 동정 및 기도 요청**

- 이은순 아네스 자매님;금주에는 LA 에 가십니다. 안전한 여행되시길 기도합니다.
- 인후자 엘리사벳 자매님; 2 개월여정으로 한국에 떠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즐거운 여행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공지사항:**

임원 회의를 아래와 같이 하고자하오니 신구 임원님들과 신구 파트장님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와 장소: 1/18/09(일) 10 시 30 분 교중 미사후 (12 시) Sunny Bowl (최다니엘 레스토랑)  
 토의내용:

1. 정관 검토
2. 단원 회비와 성가대 은행 계좌 개설의 건
3. 단원 관혼 상제에따른 내규
4. 단원의 영명축일 선물
5. 성가대를 위한 보조 지원 그룹 검토
6. 성가대의 나아갈 길 등등.

**알림:** 성가대에서 연습하는 곡이 아래와 같이 수록되어 있으니 틈틈이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1. 평화의 기도 (김영자 안드레아 수녀님 곡)  
<http://www.sjkoreancatholic.org/node/11146>
2. 이 영혼 받으소서 (이종철 신부님 곡)  
<http://www.sjkoreancatholic.org/node/11145>
3. 교중 미사곡 파트별 연습곡은 아래의 성가대 연습실에 있습니다.  
<http://www.sjkoreancatholic.org/node/5240>
4. 화답송은 웹에 성가대 연습실에 각 파트별로 올라있으니 연습을 하십시오.  
<http://www.sjkoreancatholic.org/node/11080>

항상 음원을 제공하여 주신 최다니엘 형제님, 감사합니다.



다음 날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다시 그 곳에 서 있다가 마침 예수께서 걸어 가시는 것을 보고 "하느님의 어린 양이 저기 가신다." 하고 말하였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 갔다. 예수께서는 뒤돌아 서서 그들이 따라 오는 것을 보시고 "너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은 "라빠, 목고 계시는 데가 어딘지 알고 싶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라빠는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와서 보라고 하시자 그들은 따라 가서 예수께서 계시는 곳을 보고 그 날은 거기에서 예수와 함께 지냈다. 때는 네 시쯤 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 간 두 사람 중의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다..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 가 "우리가 찾던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뜻이다.) 그리고 시몬을 예수께 데리고 가자 예수께서 시몬을 눈여겨 보시며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냐? 앞으로 너를 게파라 부르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게파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뜻이다.)

1분 명상

♡그대를 생각할 때면 ♡ ♡



-시 Madam

하루가 아무리 힘겨워도  
그대를 생각할 때면  
내 마음엔 온통 행복이 넘칠 뿐입니다.

하루가 아무리 즐거워도  
그대를 생각할 때면  
내 마음엔 온통 눈물이 흐를 뿐입니다.

힘겨울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즐거울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대를 생각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하고  
그대를 생각할 수 있어 너무 슬픔니다.

내가 그대를 생각할 때면  
그대도 나를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 함께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사탕: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1 코린 16,14).**”

오늘의 유머

6살 어린 아이에게 창세기를 들려주던 할머니가 물었다.  
하느님은 매일 매일 자신의 한 창조를 보시니 좋더라 했다. 왜 그렇게 좋으셨을까?

아이의 대답 : "자기 가 했으니까?"

할머니 : "??????"

아이의 부연 설명 : "남이 했어봐? 그런말 안해! 다 자기가 한게 다 좋아 보이니까!"